

“청림, 우리의 일상 돼야”

전북교육청, 반부패 청림실천 다짐…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서거석 교육감, “소통·협력이 원동력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림실천 다짐결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교육청의 종합 청렴도 1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전 직원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청렴 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 △전북교육 '청림의 꽃 피우기' △청렴 릴레이 '청림공 던

지기' 순으로 진행됐다. 청렴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부당 요구 및 지시 금지 △특혜 제공 금지 △갑질 행위 금지 및 신뢰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사는 서거석 교육감과 직원대표가 청림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선서를 통해 청림 실천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청림 나무'에 청림의 꽃이 활짝 피는 퍼포먼스로 청림 문화 확산과 공

유를 다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모든 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본청 뿐만 아니라 14개 지원청, 직속기관, 780여 개 학교에서 늘 살아 숨 쉬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청렴도는 우리 모두의 성적표”라며 “‘청림’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소통과 협력’이 조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림실천 다짐결의' 행사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림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위(Wee) 프로젝트 시범사업 선정

특교금 2억5000만원 확보
완주교육지원청 시범 지정
내년 2월까지 1년동안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We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 올해 2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중심의 위기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전문적인 지원체제

구축으로 통합 지원하고, 위(Wee)센터의 역량 및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년간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완주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 위(Wee) 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학교 중심의 위기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전문상담인력의 역량 강화 △위(Wee)센터의

역량 및 기능 확대 강화 △마음건강 통합 지원 체계 강화 등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위(Wee)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해 도내 모든 학생의 마음을 치유 및 살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초등학생 위탁교육기관 신설, 병원 연계형 위탁교육기관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올해 총 72명 신규 채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누리집을 통해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발 예정인원은 교육 행정직 25명(일반 21명·장애 3명·저소득층 1명), 사서직 4명, 공업직(일반기계·일반전기) 4명, 시설직(일반토목·건축) 7명, 시설관리직 16명, 운전직 16명 등 총 72명이다. 시설직(건축) 1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선발할 계획이다.

시험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도 내로 돼 있거나,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북도에 둔 기간이 모두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시험부터는 필기시험 과목 가운데 국어와 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변경된다. 출제 기조 변경에 따라 국어와 영어를 시험과목으로 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간이 10분 연장된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100분에서 110분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의 경우 1.5배 시간연장 신청 시 165분, 1.7배 시간연장 신청 시 190분의 시험시간이 부여된다. 제1회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4월 14~18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http://edurecruit.je.go.kr>)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 → 알림마당 → 시험/채용/구직 → 지방공무원시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 홍보대사 '전율' 24명 임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청병 역할을 하는 학생 홍보대사 '전율'이 임명장을 받고 1년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이날 김수민 학생(경영학과)을 비롯한 24명의 제25기 학생 홍보대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전북대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1년 임기를 수행한 김주승(행정학과)학생 등 19명의 24기 학생 홍보대사들에게도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입 학생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대학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설명회와 각종 행사 지원, 입시 홍보,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특히 시대 흐름에 맞는 대학 홍보를 위해 카드뉴스와 브이로그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개발·제작해 참신한 SNS 채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 최초로 일반계고에 성인반을 편성한 익산 함열여자고등학교(교장 송해영)가 4일 입학식을 개최한 가운데, 유정기 부교육감, 정성환 익산교육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성인반에 입학한 어르신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83살에 여고생 됐어요”

익산 함열여고 성인반 입학식 개최
문해교육 졸업생들 성인반 요청 반영

전북 최초로 일반계고에 성인반을 편성한 익산 함열여자고등학교(교장 송해영)가 4일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입학식에는 유정기 부교육감, 정성환 익산교육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특히 1학년 입학생 119명 가운데 18명은 나이가 지긋한 성인반 입학생들로 눈길을 끌었다. 성인반 최고령자는 83세로 평균 연령이 69세다. 문해교육 졸업자 11명, 검정고시 합격자 3명, 오래 전 중학교 졸업자 4명 등 18명은 올해 1학년 2반에서 공부하게 된다. 함열여고 성인반은 그간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갈 곳이 없던 익산

문해교육 어르신들이 교육감에게 '우리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성인반 입학생들은 3년 동안 △교복 지원 △무상 교육 △중식 제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체육대회 등 모든 학사 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학급 감축 위기에 처해있던 함열여고가 학급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성인반 편성은 큰 의미가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그 토록 원했던 고등학교 생활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내 대학들 입학식 잇따라 전주대 “걸어가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4일 학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학식은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으로, 대학의 비전을 공유하며 원활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단과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관악단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총장 환영사와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소속 단과대학장 및 학생대표, 남아 신입생 대표 선서를 통해 활기찬 대학 생활에 대한 포부를 다졌다. 이날 입학식을 준비한 학생취임처는 신입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4~5일 이틀간 학생회관 일대에서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포대활동 △진로·전공탐색 △대학생활 △학과탐색 등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신입생들의 잠재력(가능성)을 모아 자기주도적

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배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주대학교의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과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언제나 전주대가 함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 신설과 인문콘텐츠대학 및 경영대학 내 학과 구분없는 통합선발을 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도전 정신·자신감 갖길 바라”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4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조준모 총동문회장, 교무위원, 단과대학장, 이광범(미디어영상학과 4년)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입생을 대표해 강민서(한의예과)·이은재(약학과) 학생이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깨끗한 학풍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선서했다. 이에 박 총장은 신입생들이 학문탐구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총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대학 생활은 신입생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



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학에서 많은 배움과 경험을 쌓아가길 바라며, 신입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준 총장은 “‘재선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 한 명 가르침만 못하다’는 황금백만장불어일교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교는 지난 45년간 지역사회와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상을 유지하게 배출해 왔다”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무엇이든 이를 수 있다”는 도전 정신과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협약형 특성화고 첫 신입생 맞아

한국치즈과학고 입학식
컨소시엄 위원회 1차 회의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교장 김은하)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후 첫 신입생을 맞았다. 4일 한국치즈과학고에 따르면 이날 2025년 한국치즈과학고 컨소시엄 위원회 1차 회의와 협약형 특성화고 1기 입학식을 열어 협약형 특성화고 출범을 기념하고, 신입생들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행사에는 운영인 교육국장과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을 포함해 임실엔지니어클러스터와 임실치즈레미파크, 상하농원, 임실치즈N식용견구소 등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컨소시엄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새로 부임한 김은하 교장과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치즈과학고의 발전 방향과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비전을 공유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입학식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서거석 교육감이 영상을 통해 신입생 36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한편, 한국치즈과학고는 앞으로 지역전략산업인 치즈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치즈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즈 개발·제조 캠프 톤 디자인 △마늘과 함께하는 리빙랩 모델 △산학공동교육 △학교-기업 유제품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형심 과장은 “한국치즈과학고 학생들이 치즈, 바이오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3년 연속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운영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은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디지털 역량수준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이커머스 제품 등록, 상세페이지 제작, 디지털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4일 전주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의 반을 운영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과정에는 국내·외 이커머스(스마트스토어, 야마존, 이베이, 소포) 제품 등록 및 발송, 정부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1 현장 멘토링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해 소상공인의 성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 1:N 맞춤형 멘토링, 온라인 유튜브방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유튜브 MD 토크콘서트,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오프라인 플래마켓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우 교수(PM)는 “3년 연속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년간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